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 시리즈 2.

“구도자의 영성”

(마태복음 13:1-9)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코스 중 하나인 스페인의 ‘카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는 프랑스 남부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 북부로 이어지는 800km의 험난한 여정입니다. 하루에 20여 킬로미터씩 꼬박 한 달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이 길을 걷는 목적은 저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건강을 시험하기 위해, 누군가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또 누군가는 아직 만나지 못한 신을 경험하기 위해 걸습니다. 목적은 달라도 이 여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구도자’라는 공통된 이름이 부여됩니다. 인생의 참된 길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구도자의 길을 걸었던 이야기가 존 번연의 『천로역정』에 담겨 있습니다. 책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수많은 험난한 길을 걸었던 것처럼, 참된 구도 정신을 잃어버린 오늘날 우리도 천로역정을 통해 진정한 구도자가 되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진지한 구도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모인 무리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천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 역시 등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채 책 한 권을 읽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울부짖고 순례를 시작합니다. 그가 펼친 책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는 시편 119편의 고백처럼, 우리도 성경을 나침반 삼아 인생의 순례길을 떠나야 합니다.

둘째, 정직한 자기 대면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역사는 죄와의 대면입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 부위를 정확히 알아야 치료받을 수 있듯, 말씀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정직하게 죄를 마주하는 것이 구도자의 출발점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온전히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가족조차 이해하지 못해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갔던 크리스천의 발걸음이 결국 천성에 닿아 온

가족을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었듯, 구도의 길에는 기꺼이 감내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구도의 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유형의 마음발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발의 비유를 통해 나는 어떤 구도자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구도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다녀 단단하게 굳어진 땅처럼, 마음이 닫히고 교만해진 상태입니다. 천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의 권면을 끝내 거절하고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가 버린 ‘고집’이라는 사람과 같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튕겨 나가며, 악한 자에게 곧바로 빼앗겨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돌발 같은 구도자입니다.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깊이가 없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크리스천과 함께 길을 나섰다가 절망의 늪에 한 번 빠진 후 불평하며 줄행랑을 친 ‘변덕’이라는 인물과 같습니다. 신앙의 외적인 열심은 있으나 기도의 깊이가 없고,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바로 무너져 내리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발 같은 구도자입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뿌리도 내리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에 기운이 막혀 자라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로 예수님을 떠난 부자 청년이나,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난 ‘데마’와 같습니다. 은광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이탈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구도자입니다. 흙이 깊고 돌이나 가시덤불이 없어 수용적이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옥토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지는 위기를 겪고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좁은 문을 향해 끝까지 걸어간 크리스천이 바로 이 옥토였습니다. 옥토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가와 돌발, 가시떨기를 걷어내는 인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서영은 작가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목적지에서 나귀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화살표에 빔진 자입니다. 이 빛을 좇는 길은 저 자신이 또 다른 화살표가 되어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으뜸 화살표이신 예수님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96장을 지은 가난한 바이올린 연주자 노을리스 쇼 역시 “이 땅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며 비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길가와 돌발, 가시떨기처럼 굳어지고 ‘이상해진 마음’까지도 어루만지시고 고치시는 분입니다.